



## 교육대학 교육여건의 개선을 기대하며

송 광 용 | 서울교육대학교 초등교육과 교수

2007년이 시작된 지 벌써 두 달이 지났건만 새해가 되었다는 것이 그렇게 실감이 나질 않는다. 대학교수의 새해는 3월이 되어야만 온다는 말이 사실인가 보다. 새해는 1월 1일부터 시작되지만 우리는 설날 때까지 새해인사와 덕담을 나눈다. 그런가 하면 대학교수는 3월과 더불어 시작되는 1 학기가 되어서야 비로소 새해가 왔다는 것을 실감하게 된다는데 나도 예외는 아닌가 보다. 지나긴 동면에서 깨어난 것처럼 뒤늦게 덮어 두었던 책들을 뒤적이며 강의를 준비하다보면 분주한 새해가 갑자기 밀려온다. 새내기 신입생들의 활기찬 걸음걸이, 다닥다닥 나붙은 게시물들, 수줍은 듯 고개를 내민 교정의 개나리와 진달래꽃 등, 생동하는 봄과 함께 나도 뒤늦게 새해를 시작한다.

요즈음 노량진 학원가에는 가장 우수한 학생들이 모인 반 이름이 '서울대·교대반' 이라고 한다. 물론 예전부터 '서울대반', '연고대반' 등은 보편적으로 각 학원마다 존재해 왔다. 그런데 최근 몇 년 사이에 교육대학 진학 희망자가 늘어나면서 이제는 '서울대·교대반' 이 생겼다는 것이다. 이것은 그만큼 교직이 학생들에게 매력 있게 되었고, 그 결과 우수한 학생들이 교육대학 진학을 희망한다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이러한 현상은 정시모집이나 편입생 모집을 위한 입시에서도 그대로 반영되어 편입생의 경우 평균 경쟁률이 20대 1 정도를 유지하고 있어 교육대학 교수의 한 사람으로서는 매우 고무적이고 흐뭇한 일이 아닐 수 없다. 전 세계적으로 대한민국처럼 고등학교 상위 5% 이내에 드는 학생들이 초등교사가 되기를 희망하는 나라는 그렇게 흔하지 않은 일일 것이나, 교육대학 교수인 나로서는 이러한 현상이 마냥 즐거울 수만은 없으며, 다른 한편으론 걱정과 고민을 낳게 한다. 우수한 학생들이 모여들어 이들을 훌륭한 교사로 키워야 하는 교수의 입장에서는 교육목표를 성공적으로 수행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한 교육여건이 한계로 다가오기 때문이다. 학급당 학생 수가 40명에 육박하여 개별화된 수업은 엄두를 못 내고, 연구를 위한 조교가 없어 심지어는 자료 한 장 복사를 위해서도 이리저리 헤매야 하는 현실이 참담하게 다가온다. 사실 교육대학 교수진은 이제 최고의 수준에 있다 해도 과언이 아니다. 그런데 이들이 역량을 충분히 발휘할 수 있는 교육과 연구여건의 조성이 미흡하여 창의적인 연구와 학생지도에 몰두할 시간을 허드레 일에 빼앗긴다는 것은 여간 안타까운 일이 아니다. 교육대학의 교수는 다른 어느 대학의 교수보다도 그 역할이 더욱 막중하다. 이렇다 할 천연자원이 없는 우리나라의 미래는 인적자원



## 대학산책

에 달려 있고, 그것은 바로 교육에 의해 형성될 수 있으며, 교육의 기초를 이루는 초등교육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는데, 이러한 초등교육의 성패를 좌우하는 것이 바로 초등교사이며, 교육대학은 우리나라 초등교육을 짊어질 수많은 교사를 배출해 내기 때문이다.

그동안 교육대학은 규모에 비해 너무나도 효율적으로 훌륭한 초등교사를 양성해 왔다. 이것은 무엇보다도 우수한 학생과 교수들의 노력으로 일구어낸 것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런데 정권이 바뀔 때마다 교육부는 교육대학 통폐합 문제를 단골 메뉴로 들고 나와 교육대학 구성원들의 심기를 불편하게 하고 있다. 물론 통폐합의 명분은 항상 그렇듯이 우수한 초등교사를 양성하기 위해서란다. 즉, 초등교사도 종합대학에서 개방제로 양성해야만 학생들이 다양한 경험을 가질 수 있고 대학 운영의 효율성도 높일 수 있는데, 이러한 방안에 반대하는 것은 교육대학 구성원들의 이기주의라는 것이다. 그러나 명분은 항상 그럴 듯하게 다양한 이유를 대고 있으나 그 이면에 숨어 있는 목표는 경제적 효율성과 정치적 계산이 깔려 있음을 알 수 있다. 교육대학을 종합대학 내에 두게 되면 예산이 감축될 것이라는 소박한 생각과 교육대학은 겨우 11개에 불과하여 통폐합을 강행해도 저항이 그리 심하지 않을 것이며, 개혁의 성과로 선전하기에는 더없이 좋은 아이টে이라 생각하여 역대 정권이 여기에 집착해 온 것은 아닌가 추측된다.

그러나 모든 교육정책이 그러하듯이 교육대학에 관한 정책도 어디까지나 교육적 관점에서 접근해야만 한다. 과연 어떻게 하는 것이 우수한 초등교사를 양성하는 가장 좋은 방법

인지를 생각해보아야 하며, 개혁에 앞서 이제까지 왜 교육대학이 현재와 같은 체제를 유지해 왔는지도 검토해 보아야 한다. 초등교사를 교육대학에서 양성한 역사만 따져도 40여 년이나 되는데 예전의 사람들은 미처 그러한 생각을 못해서 그렇게 했을까? 초등교사를 목적제로 양성하면 높은 취업 가능성 때문에 우수 자원의 유치가 가능하고, 교사의 전문성 함양 및 책무성과 사명감 고취가 용이하며, 학생 정원 조정의 탄력성과 융통성으로 교원 수급이 용이하기 때문에 이제까지 교육대학 체제가 현재와 같은 형태로 유지되어 온 것은 아닌지 다시 한 번 신중히 생각해 보아야 한다. 따라서 교육부도 이제는 교육대학에 대해 규모가 영세하여 속히 통폐합시켜야만 될 대상이라는 상투적인 생각에서 속히 벗어나 그러한 관심과 노력을 교육대학의 교육여건 개선과 교수들에 대한 지원에 쏟아야 할 것이다. 공연히 심심하면 한 차례씩 교육대학 통폐합 문제를 들고 나와 교육대학 구성원들의 정력을 엉뚱한 곳으로 분산시키는 어리석음을 더 이상 범하지 말아야 한다. 사실상 교육부가 내세우는 경제적 효율성도 장기적으로 따지고 보면 교육대학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는 것임을 깨달아 교육부는 교수들이 교수와 연구에 전념할 수 있도록 우선적으로 다음 몇 가지만이라도 속히 해결해 주어야 한다.

먼저 교육부는 현행 40명으로 되어 있는 교육대학 학급 편성 기준을 20명 수준으로 속히 낮추어 교수여건을 획기적으로 개선할 필요가 있으며, 일시에 그렇게 하기가 어렵다면 점진적으로라도 이를 개선해 나가야 한다. 초등학교도 학급당 학생 수가 2006년 현재 30.9명인데 초등학교 교사를 양성하는 교육대학 학급 편성 기준이 40명이라는 것은 도대체 말이



되지 않는다.

또한 교수들의 연구여건을 속히 개선해 주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박사과정의 설치가 시급히 요망된다. 그동안 역대 정권은 교육개혁을 부르짖고 교원교육의 개선을 강조할 때마다 초등학교 교원을 위한 박사과정을 교육대학에 설치하겠다는 달콤한 약속을 남발해 왔다. 그러한 공약이 나오기 시작한지 이미 10여 년이 지났으며, 대학원 박사과정에 진학하여 계속 공부하고자 열망하는 초등교사가 상당수에 이르고 있다. 특히 국무총리실 '규제개혁단'에서조차 교육대학에 박사과정 설치를 허가하지 않는 것은 불공정하다는 지적이 있었지만, 교육부가 아직도 교육대학에 박사과정을 인가하지 않아 많은 초등교사와 교육대학 교수들을 실망시키고 있는 것은, 교육대학이 4년제로 바뀐 지 어느덧 4반세기가 지난 지금까지도 교육대학을 사범학교나 2년제 대학으로 생각하기 때문은 아닌지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일이다.

그리고 교육부는 교육대학 교수들이 연구를 활성화 할 수 있도록 연구년제나 안식년제를 조속히 제도화해야 한다. 적어도 6년 이상 강의 후에는 1년 정도의 연구년이나 안식년을 갖도록 해야 한다. 교수들은 연구가 뒷받침되어야만 학생들에 대한 수업을 제대로 할 수 있기 때문이다.

'서울대·교대반'을 거쳐 어렵게 입학한 저 우수하고 생기발랄한 학생들이 교육대학과 교수들에게 실망하지 않고 그들이 목표로 하는 훌륭한 초등교사가 되어 보람을 느끼며 교정을 떠나게 될 수 있기를 기원한다. 이처럼 훌륭한 학생들이 초등교사가 되길 열망하여 입학하는 교육대학에 정부가 획기적으로 지원하는 것이야말로 우리나라의 미래에 대한 가장 확실한 투자일 것이라는 상념에 젖어 오늘날도 창밖에 희망처럼 피어나는 하얀 목련을 말없이 응시한다. **대학교육**

